



자녀에게 꿈과 목표를 갖게하자

박홍묵/PSA 자녀성공 어머니스쿨 부원장

초등학교 5학년인 준호는 요즘 학교에 가는 날이 즐겁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준호의 학교 생활의 변화는 최근 준호의 습관과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호는 얼마 전까지도 선생님이나 엄마로 부터 좋은 이야기를 별로 듣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준호의 습관과 태도가 바뀐 것은 최근에 준호가 세운 자신의 '꿈과 목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김문옥씨는 준호가 책을 많이 읽는데 활동적이지 못하고 용기가 없고, 소심한 것이 걱정이었다.

어느날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야, 너는 커서 뭐가 될거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

“책만 많이 읽으면 뭐해. 뭐가 되겠다는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

그렇다. 자녀에게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 보고 자녀와 대화하여 자녀의 '꿈과 목표'를 설정해 보자.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엄마에게 카드를 한 장을 내밀었다.

‘나의 꿈’

과학자가 된다.

노벨상을 받는다.

여러 나라 말을 한다.

어린이 회장이 되고 싶다.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한다.

‘나의 목표’

2005년 서울 과학고 입학.

-매일 수학 문제집 2쪽씩 풀다.

-매일 영어 공부 두 시간씩 한다.

-매일 운동 30분씩 한다.

김문옥씨는 너무나 놀랐다. 준호가 너무나 야무진 꿈과 목표를 세우게 될 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준호야. 이게 네가 쓴거니?”

“그럼요. 엄마가 그때 꿈과 목표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책상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 유명한 과학자말이지”

“네. 나도 아인슈타인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김문옥씨에게 전화를 했다. 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우리 반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준호의 변화를 너무나 반가워하셨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74년에 졸업한 115명의 졸업생을 약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상위 3%의 성공한 졸업생은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